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SOUTHEAST ASIA

동남아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9/07~09/13

1. 동남아 주요 항만 사이버 공격 위협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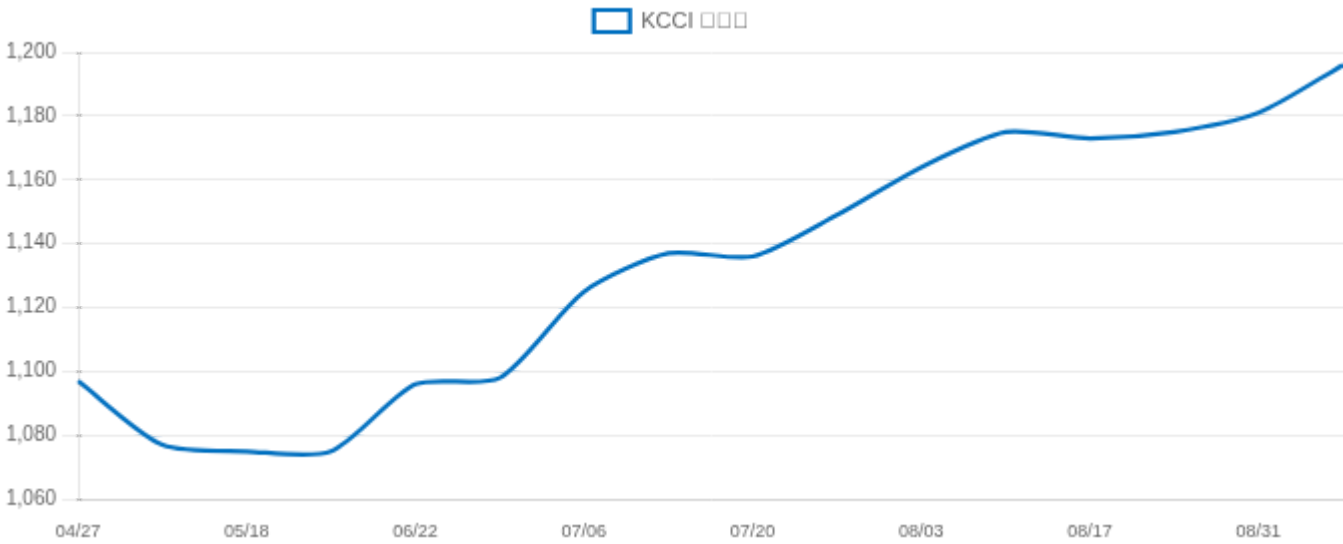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동남아 권역의 핵심 흐름은 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의 현실화로 요약됨. 말레이시아 탄중펠레파스 항만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운영 중단은 주요 환적 허브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역내 물류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킴.

동남아 항만들의 자동화·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격 표면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단기적 물동량 차질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향후 각국 정부와 항만 운영사는 사이버 복원력 투자와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동남아	1,196 \$/FEU	09/07	+1.3%	+1.8%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9/07

동남아 주요 항만 사이버 공격 위협

말레이시아 탄중펠레파스 항만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수 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됨. 항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동남아 주요 항만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환적 물동량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현황: 탄중펠레파스 항만(PTP)은 2025년 3월 11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터미널 운영이 수 시간 중단됨. 운영사인 APM터미널과 합작 파트너 MMC는 즉각 복구에 착수했으며, 일부 선박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고객 데이터 무단 접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이버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조사 중임.

원인: 항만은 글로벌 무역의 핵심 인프라로, 화물 처리 및 예약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음. 2017년 노트페트야 공격으로 APM터미널 17곳이 마비된 사례, 2021년 남아공 Transnet, 2022년 인도 자와할랄 네루 항만, 2023년 일본 나고야항 사건 등이 대표적임. 탄중펠레파스는 세계적 환적 허브로서 공격 가치가 높은 표적으로 추정됨.

영향: PTP는 말레이시아 최대 환적 항만 중 하나로, 이번 중단은 동남아 역내 무역 및 환적 화물의 일시적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Maersk 측이 조기 복구를 공식화했으나, 공격 발생 시점의 선박 접안 및 화물 처리 지연이 단기 물류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음. 고객 데이터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직접적 피해는 제한적이나, 보안 우려로 항만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탄중펠레파스 항만, 2025년 3월 11일 사이버 공격으로 수 시간 운영 중단
- 운영사 APM터미널·MMC, 시스템 복구 및 순차적 운영 재개 발표
- 2017년 노트페트야, 2021년 Transnet, 2022년 자와할랄 네루, 2023년 나고야항 등 항만 공격 사례 증가
- PTP는 동남아 주요 환적 허브로, 물동량 지연 가능성 단기적으로 제기됨
- 고객 데이터 무단 접근 증거는 아직 없음

전망

탄중펠레파스 항만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공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단기적으로는 일부 선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운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공급망 교란 가능성은 낮음. 다만, 항만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동남아 항만들의 보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화주 — 탄중펠레파스 항만 경유 화물의 일시적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적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체 경로를 검토해야 함.

포워더 — 환적 허브 중단에 따른 물류 지연 리스크를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대체 항만을 활용한 서비스 재편을 고려해야 함.

항만·선사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와 복구 절차를 점검하고, 운영기술(OT) 시스템 보안 강화에 투자해야 함.